



02 보도 중앙기구 1학기 공약이행 상황과 2학기 계획은?

03 사회 너무 뜨거운 '얼음물 샤워'

06 학술 자연의 경이로움 싱크홀, 우리나라도 싱크홀이?

07 문화 작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겨있는 책, 독립출판

08 문화기획 오늘 전시보러 가는 여자 내일 전시보러 가는 남자

## 한성대는 어떤 청사진을 보았나?

### 학생 대표와 학교 본부, 2차 간담회 진행해

2014년 9월 15일, 정해진 시간보다 10여 분 늦게 총장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강신일 총장을 사이에 두고 반으로 갈라져 자리했다. 마주 보게 된 이들에게서는 긴장감이 뿜뿜했다. 스태플러로 한 번에 집을 수 없어서 그리고 각각 다른 자료가기 때문에 목격한 서류 열한 부는 짐계로 집혀 있었다. 자료를 받아든 순간 모두 깊은 숨을 들이마셔야 했다.

마주 보고 앉은 이들이 모인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 학생대표들과 학교 본부가 마주한 두 번째 순간, 2차 간담회였다.

이중혁 총학생회장, 원정호 총대의장, 김경민 졸업준비위원장, 권관학 인문대 부학장, 김백현 예술대 학생회장이 가져온 안건은 이미 몇 번의 회동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이었다. 지난 8월 25일에 개최된 대학평의회와 9월 1일에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사안에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 종합관 신축과 시작된 개강 직후에도 학생대표들을 무겁게 짓누른 사안은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찢어버린, 하지만 결코 잊지 않았던 지난해 12월의 달력을 다시 펼친다. 작년 11월 아니 어쩌면 더 그 이전부터 불었는지 모를 '학점 비율 감축'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다. 기말고사 이후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 연말 그리고 겨울방학으로 기대에 부풀 학생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니 공지됐다. 대학교

조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등장한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변경'이었다. 당장 피해 보는 것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마주 보고 앉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첫 번째 안건은 이것이었다. 이중혁 총학생회장은 "학생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이외의 타협안은 보이지 않았다. A학점 비율 감축이 0.7점의 가산점으로 바뀐 지금,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을까? 학교본부는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장바구니제 도입 검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서 논의된 사항이었다. 노재학(기획협력) 처장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름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대표들과 반

###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학술정보관



2010년도부터 도서관 이용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11년도에는 66만 5천여 명, 12년도에 57만 4천여 명, 13년도에 54만 1천여 명에서 대출량도 줄었다. 11년도에는 17만 9천여 권, 12년도에는 16만 9천여 권(비도서 제외), 13년도에는 14만 9천여 권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자료 웹 검색이나 모바일 서비스, e-book 등의 이용률은 올랐다.

그리고 그는 "시령기간에만 개관하고 평상시에는 폐관했던 일반 열람실인 제3열람실을 평소에도 개관한다"고 설명했다. 조별과제가 많은 학생들이 토론할 공간의 부족으로 도서관 로비, 복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3열람실을 평소에도 개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안 팀장은 "이전 학술정보관에 대해 안흥열(학술정보팀) 팀장은 "이는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로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도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성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학술정보관은 지난 1학기 그리고 여름방학에 걸쳐 자체적으로 많은 환경적 변화를 가졌다.

학술정보관의 서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장서는 계속 들어와 3.45.6층 서가에 도서가 꽂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45.6층에 비치한 도서 중 이용률이 적은 도서 약 1만 1천권을 선별하여 1층에 자리한 보존서고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서가에 여유를 주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대신문사 2014년 2학기 신문발행 일정

| 발행호        | 발행일         |
|------------|-------------|
| 492호 (개강호) | 9월 1일 월요일   |
| 493호       | 9월 16일 화요일  |
| 494호       | 9월 29일 월요일  |
| 495호       | 10월 13일 월요일 |
| 496호       | 11월 10일 월요일 |
| 497호 (종강호) | 12월 1일 월요일  |

## '다' 그룹 62개 학교 중 한성대 취업률 60등 기록해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이 '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4.8%로 전년 대비(55.6%) 1.2% 하락했다.

전국 대학 및 산업대학(총 186개교)을 졸업자 명수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눈 '14년 학교 규모별 취업률 현황'에서 본교는 '다'그룹에 포함된다. '다'그룹은 졸업자가 1,000명 이상에서 2,000명 미만인 62개교가 포함되었으며 본교인 한성대뿐만 아니라 가톨릭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등이 포함되었다.

한성대학교는 '다'그룹 62개 대학 중에서 60등을 기록했다. 이는 본교가 총 대학 취업률 54.8%에서 10.6% 모자라는 44.2%의 실적을 얻었기 때문이다. 본교보다 하위권을 기록한 학교는 용인대(44.0%), 동덕여대(42.5%)가 있으며 '다'그룹에서 취업률 1위를 기록한 학교는 건양대

| 학과       | 2013취업률 | 2014취업률 |
|----------|---------|---------|
| 한국어문학부   | 37.9%   | 28.7%   |
| 영어영문학과   | 52.6%   | 38.4%   |
| 역사문화학과   | 38.3%   | 41.6%   |
| 지식정보학과   | 49.4%   | 55.7%   |
| 경영학부     | 48.4%   | 46.8%   |
| 무역학과     | 57.1%   | 46.8%   |
| 경제학과     | 42.4%   | 48.5%   |
| 행정학과     | 41.3%   | 37.8%   |
| 부동산학과    | 57.1%   | 28.6%   |
| 패션디자인전공  | 38.8%   | 41.3%   |
| 의류패션산업전공 | 58.0%   | 37.8%   |

▲ 본교의 2013·2014년 취업률이다.

(74.5%)이다. 이번년도 한성대의 각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공과계열이 56.2%로 1위, 사회계열이 41.7%로 2위, 인문계열이 41.1%, 예술대학이 34.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계열별/전공별 취업률과 같은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공과계열의 취업률이 높은 것

| 학과            | 2013취업률 | 2014취업률 |
|---------------|---------|---------|
| 무용학과          | 38.5%   | 30.6%   |
| 회화과           | 19.5%   | 9.1%    |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50.0%   | 47.8%   |
|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 54.0%   | 27.8%   |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68.4%   | 44.7%   |
| 멀티미디어공학과      | 56.6%   | 65.2%   |
| 컴퓨터공학과        | 63.4%   | 52.2%   |
| 정보통신공학과       | 51.9%   | 65.3%   |
| 정보시스템공학과      | 62.5%   | 55.6%   |
| 산업시스템공학과      | 47.2%   | 57.3%   |
| 기계시스템공학과      | 46.1%   | 41.7%   |
| 전체취업률         | 49.2%   | 44.2%   |

으로 나타났다. 올해 취업률과 전년도의 취업률 비교하면 총 22개 학과에서 역사, 지정, 경제, 패시, 멀티, 정통, 산경 이상 7개 학과의 취업률이 상승했다. 또한 5년간의 꾸준한 취업률이 증가한 과로는 무용, 애니과가 있다. 취업률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 학과            | 2013취업률 | 2014취업률 |
|---------------|---------|---------|
| 무용학과          | 38.5%   | 30.6%   |
| 회화과           | 19.5%   | 9.1%    |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50.0%   | 47.8%   |
|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 54.0%   | 27.8%   |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68.4%   | 44.7%   |
| 멀티미디어공학과      | 56.6%   | 65.2%   |
| 컴퓨터공학과        | 63.4%   | 52.2%   |
| 정보통신공학과       | 51.9%   | 65.3%   |
| 정보시스템공학과      | 62.5%   | 55.6%   |
| 산업시스템공학과      | 47.2%   | 57.3%   |
| 기계시스템공학과      | 46.1%   | 41.7%   |
| 전체취업률         | 49.2%   | 44.2%   |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특성화 사업(CK-II),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과 관련해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있어서 취업률은 평가를 위한 8개의 지표 중 하나였다. 취업창업팀 조중집(차장)은 "그동

| 학과            | 2013취업률 | 2014취업률 |
|---------------|---------|---------|
| 무용학과          | 38.5%   | 30.6%   |
| 회화과           | 19.5%   | 9.1%    |
| 시각영상디자인전공     | 50.0%   | 47.8%   |
|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 54.0%   | 27.8%   |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68.4%   | 44.7%   |
| 멀티미디어공학과      | 56.6%   | 65.2%   |
| 컴퓨터공학과        | 63.4%   | 52.2%   |
| 정보통신공학과       | 51.9%   | 65.3%   |
| 정보시스템공학과      | 62.5%   | 55.6%   |
| 산업시스템공학과      | 47.2%   | 57.3%   |
| 기계시스템공학과      | 46.1%   | 41.7%   |
| 전체취업률         | 49.2%   | 44.2%   |

안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 프로젝트에 너무 무관심했고 학교는 홍보가 부족했다"며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취업률 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hippo6@hansung.ac.kr

**정정합니다**

지난 492호 수강신청의 전공과목 서버 오류의 학과를 '패션디자인'이 아닌 '의류패션산업전공'으로 정정합니다.

**한성대 신문사 2014년 2학기 신문발행 일정**

| 발행호        | 발행일         |
|------------|-------------|
| 492호 (개강호) | 9월 1일 월요일   |
| 493호       | 9월 16일 화요일  |
| 494호       | 9월 29일 월요일  |
| 495호       | 10월 13일 월요일 |
| 496호       | 11월 10일 월요일 |
| 497호 (종강호) | 12월 1일 월요일  |

# 중앙기구 1학기 공약이행 상황과 2학기 계획은?

## 총대의원회 'made 人'

**방학 중 1학기 정기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대의원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1학기 정기 감사를 진행했다. 정기 감사는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여 투명하게 진행했다. 정기 감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낙산의 메아리와 대의원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의원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여 대의원들과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공약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방학 중 정기 감사 외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나?**

방학기간동안 농활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학생복지위원회와 총대의원회가 공동 진행한 문화탐방기행단도 무사히 다녀왔다. 이렇게 방학 중에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 2학기에 정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력 안전인 '카드전표 영수증 사용'이 과반수 표결을 얻지 못했다고 들었다.**

지난 1학기 대의원총회에서 건의한 안전의 약 3분의 1만이 통과되었다. 총대의원회에서 가장 주력한 안전인 '카드전표 영수증 사용'에 대한 안전은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영수증 사용에 있어 위·날조를 막고

정기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이 안전은 2학기에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낙산의 메아리에 학칙개정요구와 관련하여 글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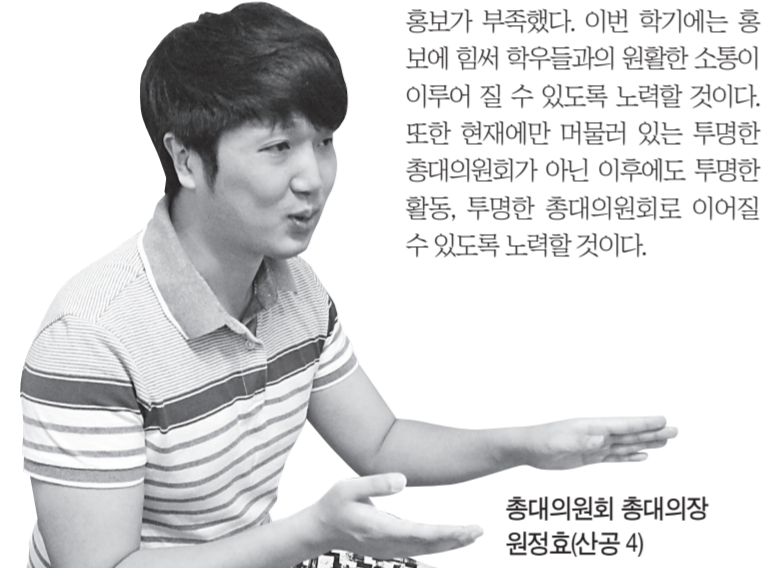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된 학칙개정 관련 글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 글에는 부분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를 테면 입학보자의 등록학기 제한의 경우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2학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방학 중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2학기에 방중 정기 감사가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방중 감사를 진행도 신중을 가해 투명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2학기에 가장 큰 행사인 선거가 진행된다. 올 선거도 예년과 같이 단대와 중앙기구를 통합해 진행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참가단 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가단위와 관계없이 선거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지난학기에는 감사에 있어 투명성을 중시한 반면 총대의원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이번 학기에는 홍보에 힘써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투명한 총대의원회가 아닌 이후에도 투명한 활동, 투명한 총대의원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총대의원회 총대위원장 원정효(산공 4)

## 학생복지위원회 '한울'

**1학기에는 어떤 활동들을 했나?**

지난 1학기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크게 학생 복지 사업, 이벤트 사업을 진행했다.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시 우산대여, 공학계산기 대여, 핸드폰 배터리 충전, 무료 인바디 검사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시험기간 간식배부, 시네마 이벤트 등 이벤트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시 우산대여나 공학계산기 대여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알고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무료 인바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해 이용률이 적었다. 이는 우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지 못 해 학우들이 알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한가위 귀향버스가 불발되었다고 들었다.**

한가위 귀향버스 사업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는 학우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년의 경우 추석에 귀향하는 학우들을 위해 한가위 귀향버스를 추진했지만 올해에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북부지역 학생복지위원회 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공동 진행이 불발되어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아쉽고 학우들에게 죄송스럽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대여해 주는 물품 회수율이 낮다고 들었다.**

대여 물품 회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재 학생복지위원회실에는 대여 물품 대신 학생들의 학생증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학기동안 우선 시 우산대여 및 공학계산기 대여를 진행해 왔다. 우산 대여의 경우 우선 시에 100여개의 우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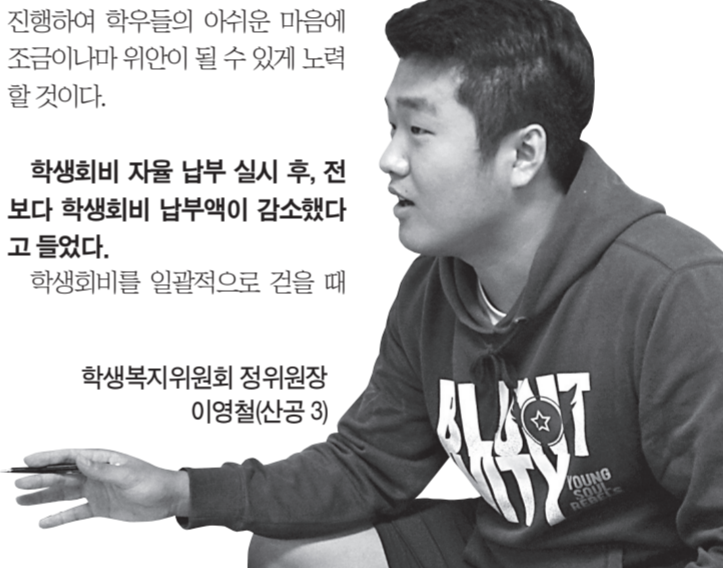
학우들에게 대여해 주는데 반납은 20~3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공학계산기의 경우에도 30여개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반납은 15여개만이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되는 물품이 많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 물품반납 리스트를 토대로 미반납자 리스트를 학과별로 작성하여 미반납자가 많은 학과의 경우 물품대여에 제한을 받는 등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업이 있나?**

학우들의 보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컬러 프린트를 구비해 놓았다. 평소 컬러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관 지하 1층 실습실을 이용하거나 학교 외부에 위치한 인쇄소에 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에게 한하여 컬러프린트를 정해진 매수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정확한 시행일이 정해지면 추후 공지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관 신축 공사로 인해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대신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이벤트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 학우들의 아쉬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학생회비 자율 납부 실시 후, 전보다 학생회비 납부액이 감소했다고 들었다.**

학생회비를 일괄적으로 걷을 때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 이명철(산공 3)

## 졸업준비위원회 'S.O.S'

**1학기에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나?**

지난 1학기에 졸업앨범대금 환불 신청 안내를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했다. 이는 졸업준비위원회의 2번 공약인 앨범 환불 금에 대한 안내 강화와 3번 공약인 SNS홍보 강화를 이행하였다. 또한 2학기에 이 공약을 이행하며 활발히 진행 할 것이다.

**지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산 학사모·학사복 대여가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지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의 경우 진리관 207호에서만 학사모·학사복 대여 및 반납이 진행되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대여 및 반납을 모두 진행하다 보니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고 혼잡하여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학사모·학사복 대여는 여자 남자로 나누어 진리관 207호와 사회과학대학관 두 곳에서 진행했다. 또한 대여 및 반납 절차를 간소화 하여 대출 및 반납시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2학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일단 1학기에 진행하기로 한 졸업앨범촬영이 비가내려 진행할 수 없었다. 다가오는 9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중에 앨범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졸업앨범촬영 그리고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들이 얼마 없다. 서울권 4년제 대학에서도 졸업앨범촬영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 이전에 받은 졸업앨범과 달리 훨씬 더 개선된 질로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

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초청강연을 메이크업을 주제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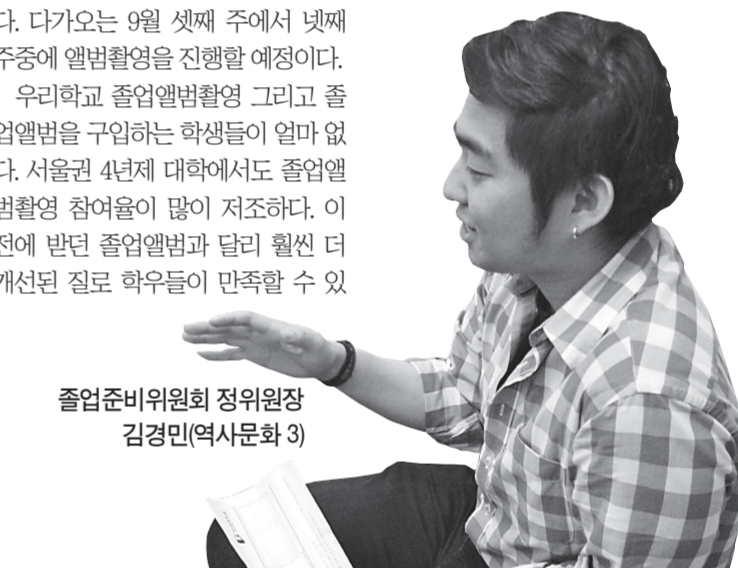
**졸업준비위원회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다.**

3~4학년 학우들의 경우 졸업대상자이기 때문에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 대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1~2학년 학우들의 경우 졸업준비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졸업준비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취업설계 소책자를 제작했다. 2학기 학우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자를 배포하며 졸업준비위원회를 홍보할 것이다. 또한 시간적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이 두 사업을 통해 2학기에 학우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 학우들과 소통하는 졸업준비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졸업준비위원회는 항상 학우들을 위해 열려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고 연락해 주면 감사하겠다. 학우들과 소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졸업준비위원회가 될 것이다. 또한 남은 학기동안 공약실현에 있어 더욱 공들여 노력할 것이다.

한지선 기자 mngrock@naver.com



졸업준비위원회 정위원장 김경민(역사문화 3)

# 핵심교양B, 그것이 알고싶다

**수강신청기간 보이지 않는 전쟁**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정점이 끝났다. 많은 학생들이 정점 마감 1분 전 까지도 초조하게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의 대부분은 핵심교양B(이하 핵심B) 때문일 것이다. 정점기간이 끝난 이후 역시 수강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B 신청 '실 패'에 대한 한탄의 글이 한성대 대신 말해드려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여럿 올라왔다. 이 와중에 핵심B를 현금거래 하자는 학생도 등장할 정도였다.

**교양기초교육이자 졸업 요건이라서 문제**

핵심B는 본교 교양기초교육 과정 중 하나이자, 졸업 요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 재학생이라면 핵심B를 신청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핵심B는 전공분야 지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양적 소양이 균형 잡힌 '통합적 융합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에 도달하기 위해 본교는 핵심B 필수 이수 학점을 6학점 이상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소속대학 강

좌 중 반드시 2학점을 채운 후 나머지 학점을 자대·타대의 강좌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수강신청에 있어서 자대·타대를 구분하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자대의 강의로 2학점을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인기 강좌가 풀린 단과대학의 경우 자대생과 타대생이 뒤섞여 수강신청에서 승리의 깃발을 잡기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 결과 경쟁률이 치열한 강좌가 속한 단과대학에 타대생들이 몰리면서 자대생이 필수로 채워야 하는 2학점을 채우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기강좌에 많은 학생이 몰려 핵심B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핵심B 수강신청을 한번에 실패해 졸업을 못할까 걱정이다', '이번학기에 핵심B를 꼭 수강해야하는데, 계절학기로 대신하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핵심B 수강신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이충진(교양교직학부 교양과정) 주임교수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153건의 수강신청을 서면으

로 받았다고 지난 11일에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공지했다. 서면 수강신청 대상은 4학년 2학기 재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이었다. 졸업요건인 핵심B를 수강하지 못한 4학년, 초과학기 재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양교직부? 학사지원팀? 누가 담당하나**

지난 학기까지 핵심교양B의 담당은 학사지원팀이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사지원팀에 연락해 문

의했으나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핵심교양B 수강신청 외 수강신청 건'은 개강 1주전 학사지원팀에서 교양학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충진 주임교수는 "갑작스러운 업무 이관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강의를 증설하거나 강의 시간을 확충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칙 제8장 교과 및 이수에 관한 조항 중 제1절 교과과정, 제29조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06. 2. 7)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양교직학부에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권한이 없다.

이 학칙과 맞물려 2006년도부터 낙산의 메아리에는 수강신청 때 마다 핵심B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기욱(교양교직학부 교양과정) 교수는 "현재 본교의 담당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hipo9%@hansung.ac.kr

# 스마트학생증은 정말 스마트해?

지난 5일 교양필수과목인 대학과 지성 강의에서 강신일 총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스마트학생증'을 만들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와 같이 일부 학생, 특히 새내기들 사이에서 스마트학생증을 원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스마트학생증은 학생증에 체크카드 및 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함께 이른 바 '스마트패키지'가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학생증에는 학내구성원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여러 종류 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

을 해소하고자 금융기능을 포함한 기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학생증을 사용하고 있는 타 학교에서는 발급 후 도서관, 기숙사 등의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있어 별도의 등록과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증으로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증에 캐시비 기능을 탑재해 통학버스, 대중교통 및 캐시비 가맹점 이용 등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초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남에 따라 해당 카드의 금융기관과 연동된 학생증을 발급한 대학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

터기로 유출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스마트학생증인 'S-card'의 카드기능을 일체 배제한 학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S-card는 농협에 금융 계좌가 있어 '이' 체크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증을 발급받는 모든 학생의 개인 정보를 농협이 가지고 있어 피해가 컸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마트학생증은 학교마다 주거래 은행과의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또다시 계약과 함께 카드를 재발

급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학생증 재발급의 경우 일반 학생증보다 금융기능의 내재된 학생증의 발급비용이 5배 가량 높아 비용적 부담이 있다.

편리와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스마트 학생증은 본교 총학생회 '행동'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종혁(정통 4) 총학생회장은 "스마트학생증은 본실 시 1회 재발급까지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학교, 은행과 많은 건의를 거친 상태였으나 연초 카드사 정보유출이 발생해 당시 해당 공약이행이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학생증을 사용했던 타 대학

들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금융기능을 제외한 일반학생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학생증을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사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학교와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지난 정보유출 소란이 한바탕 일어났을 때, 스마트학생증을 이용하는 타 대학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 3사와 거래하지 않고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더 '스마트'해지는 학생증을 위해서는 스마트학생증의 장단점에 대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찰이 필요하다.

최혜정 기자 hipo9%@hansung.ac.kr



▲ KOICA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성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물류정보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사후관리 사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미나가 8월 25일(월)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투신히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이 사업 책임자인 한성대학교의 오준근 교수, KOICA 몽골 사무소의 우동원 부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취재부)

# 너무 뜨거운 '얼음물 샤워'

##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의미변질에 대한 우려보다 반복될 무관심에 주목을



▲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혹은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유행이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지명을 받은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든지, 운동 근육·신경 질환 협회인 ALS(루게릭병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해야 하는 사회적 모금캠페인이다.

본래는 찬물에 입수하는 방식의 폴드 워터 챌린지로 시작되었으나 건강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얼음물 뒤집어쓰기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으며 한국에서도 유명인들의 참여로 화제가 되었다. 연예계를 뒤이어 대학사회에도 번진 아이스 버킷은 총장과 교수, 학생회와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아이스 버킷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A학생은 "아이스 버킷의 본 의미를 잊고 자신이 다음 아

이스 버킷 주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인기도로 생각하고 기뻐한다"며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안다면 절대 아이스 버킷을 즐거운 놀이문화로 치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B학생 역시 "아이스 버킷의 취지도 모르면서 웃고 유행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아이스 버킷의 의미 변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는 루게릭병은 무엇일까? 루게릭병은 사유와 지적능력은 그대로인데 몸속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언어 장애 등이 초래되는 병이다. 각종 의료기기, 인공 호흡기를 부착하고 24시간 내내 주변의 간병을 받다가 결국에는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을 가족이나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 따라서 루게릭병 환자들은 간병비와 의료비 등을 마련할 수 없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스 버킷의 소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아이스 버킷의 진정한 의미가 변질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한국루게릭병협회의 조광희 사무국장은 "의미가 변질 되었다고 해도 루게릭병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루게릭병 환자들은 몇 년 내에 반드시 사망한다는 절망 속에서 투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 정책이 나와 더 나은 환경에서 투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스 버킷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루게릭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루게릭병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하루 만 명이 넘는다. 조광희 사무국장에 따르면 8월 18일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9월 4일까지 총 100,2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전세계적으로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C학생은 "아이스 버킷의 의미가 변질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본래의 순수한 의도가 변질되었다 해도 아이스 버킷 속에 포함된 루게릭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캠페인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 또한 없었을 것이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식고 있는 지금, 의미 변질보다 또 다시 반복될 무관심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co.kr

### 청년 CEO를 만나다

## 한국 최초의 뜨개질 인형,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다



▲ 아이한코 김은경 대표의 모습이다.

한 아이의 엄마인 김은경 대표가 '아이한코'의 CEO가 된 지도 1년 6개월이 되어간다. 창업하기 이전에 김은경 대표는 4년제 공기업대를 나와 10년 동안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 마케팅과 기획 관련 일을 했다.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회사생활을 한 그녀, 임신 9개월까지도 업무를 본 그야말로 워커홀릭이었다. 그러나

출산 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출근할 때마다 아이가 눈에 밟혔다. 일과 육아를 사이에서 고민하던 김은경 대표는 결국 사표를 냈다.

이후 육아에 전념하던 김은경 대표, 그녀의 취미는 뜨개질이었다. 뜨개질로 인형을 뜨던 김은경 대표는 아이에게 뜨개질 인형을 선물했다. 그 인형이 창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때 김은경 대표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의 뜨개질 인형을 본 주변의 반응은 뜨거웠다. 100% 국내산 실이라 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안심되기 때문이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김은경 대표는 재능이 있는 뜨개질로 일을 시작해보고자 했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 김은경 대표는 인형을 들고 평소 알고 지냈던 MD(상품기획자)를 찾아갔다. MD와 판매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뜨개질 인형을 그에게 팔라는 것이다. 그 남성은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예전부터 뜨개질 인형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뜨개질 인형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은경 대표가 들고 있는 인형을 보게 되었고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말을 걸었던 것이다.

그 남성은 김은경 대표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 그를 통해 이제 제품을 팔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은경 대표의 창업 아이템에는 고충이 있었다.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제품 특성상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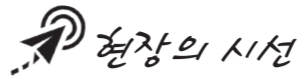
에 쉬지 않고 만들어도 3개가 최대였다. 이 상태로 사업이 불가능했고 고민을 하던 차에 DIY 패키지를 제작하게 되었다.

DIY 패키지는 인형 하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다 담겨있다. 도안과 각종 부자재들 그리고 필요한 양에 따른 다양한 실이 들어있다. DIY 패키지는 김은경 대표가 인형을 제작하면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보완한 상품이었다.

"하나의 인형을 제작할 만큼의 재료를 사고 싶지만 사실 힘드죠. 단추 하나만 사고 싶어도 묶여있는 것만 파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재료를 사야 하니까 아깝고 불편해서 DIY 패키지를 제작하게 되었죠."

예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나서 조금씩 제작하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았다. 또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맥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은경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자신만의 무기가 아닐까?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co.kr



## “부실대 퇴출이 우선이다”

'구조개혁' 태풍이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몸집 줄이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 자세한 배경은 이렇다. 2013년 기준으로 총 대입정원(4년제 대학+전문대학)은 55만 9,036명, 학령인구(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의 총 인원수)는 63만 1,835명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의 경우 2018년에 54만 9,890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에 39만 7,998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2013년의 대입정원이 유지된다면 불과 수년 후부터 신입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게 된다. 대학들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인 점을 감안, 신입생 미충원은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대학들의 몸집 줄이기, 즉 정원감축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절대 평가를 실시한 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앞서 대학특성화사업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에서 대학들의 정원감축 비율을 가산점으로 반영,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대입정원 역전 시대를 대비, 대학들의 정원감축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이다. 현재 교육부는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은 부실대 퇴출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대학 정원감축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실대를 폐쇄해 대학 수를 줄이는 방식'이 더 좋다고 답했다. 특히 초·중고 자녀의 학부모가 많은 30대와 40대에서 부실대 폐쇄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저널)이 지난 4월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바람직한 정원감축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를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 역시 '부실대 퇴출'을 꼽았다.

부실대의 폐쇄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도 부실대 퇴출은 시급하다. 실제 퇴출 대상에 오른 지방 소재 A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부당학위 수여자 837명의 학위취득 취소요구, 졸업생들은 졸업장은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국가공인 자격증까지 박탈될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지난 4년대 등록금을 투자하고 분전도 못 건진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정과 비리가 명백하고, 경영악화가 심각한 부실대를 먼저 퇴출시키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곧 오면 대입정원 역전 시대가 온다. 이에 대한 대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그 대처가 교육부의 일률적인 잣대로 통째로 되는 안 된다. 교육부가 할 일은 교육수요자들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치는 부실대를 솜아내는 것이다. 나머지는 대학에 맡기면 된다. 어차피 경쟁력 없는 대학은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대학들은 대입정원 역전 시대를 앞두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대학자율화 시대에 걸맞은 대학구조개혁 방식이다.

대학저널 편집국 정성민 기자

2014 9.25 Thu. ~ 10.18 Sat.

www.sidance.org

# SIDance2014

제 17 회 서울 세계 무용 축제

02-3216-1185 www.sidance.org



교단에서

김동환 교수  
(한국어문학부)

지난 1일자 한성대 신문을 받아 무심코 펼쳐든 내 눈에 텅 빈 공간이 벉락처럼 들어온다. '뭔가? 이 여백의 의미는.....' '개학을 맞아 이 여백에 한 학기의 각오와 계획들을 채워 넣어 보라는 것인가?' 설마 1면 톱기사 자리를 편집상의 실수로? 에이! 그럴 리는 없겠지. 순간이지만 이러 저리 머리를 굴려 보았다. 결국, '그래, 그것 밖에 없다. 그것 밖에는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망연히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인수봉은 눈부신 가을 햇살 속에 여전히 견재하다. 문득 인수봉 위로 편지지 한 장이 날아가고 있다. 며칠 전에 받은 한 장짜리 편지다. 졸업생에게서 온 편지다.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전하는 5년차 사회인인 그 졸업생이 보내온 손 편지지는 구겨져 있었다. 곁봉은 말쑥한데 속 편지지만 구겨져 있다. 쓰고 나서 버리려고 구겨던 편지지를 망설임 끝에 다시 펴서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 구겨진 편지지

버리려다 만 편지, 그 사연은 이러했다. 계약직으로 어느 방송국 작가로 취직한지 4년. 계약직 근무기간 동안 일정한 성과를 내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2년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 때 계약직이라는 수식어를 떼 주겠다는 계약서의 문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포상도 받고 이런 저런 자리에서 칭찬을 받고 있던 터라 기대에 부풀었던 내심은 금년 4월에도 명둡고 말았다. 술자리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머리를 극적이던 상사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다. "거 있잖아. 같은 깊이면 다 좋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물으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무슨 치마일까요? 녹색 치마일까요? 아니면 검정치마일까요? 아무래도 한성치마일까요?" "졸업할 때 제게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라고 하셨는데 그 자부심을 어

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까지였다. 그 흔한 인사말도 없이 구겨짐만 더한 채 보내온 편지였다. 스승의 날 언저리였던 것 같다. 나는 아직 그 답을 보내지 못했다. 그 날 이후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워지기만 했다. 특성화사업이니 대학평가니 하는 말들과 더불어 더운 여름을 보내고 개학을 맞이했지만 난 여전히 그 친구에게 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메일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난 여전히 그 친구가 던져준 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그 친구에게 전해 줄 답을 찾고 싶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리보다 의무를, 이익보다 희생을,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나설 때 비로소 보이게 될 것이다.

## · 사 설 · 정답은 공평(公平)이야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는 살아오면서 수십 번 들어온 단어이다. 때로는 평등이 어울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공평이 어울릴 때가 있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함'이고 대표적인 적용이 男女平等(남녀평등)이다. 반면 공평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쪽에 기울이지 않고 공정(公正)함'이고 대표적인 적용이 공평과세(公平課稅)이다. 두 단어의 의미를 보면 '차별'을 배제하느냐 포함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평등과 공평은 누구에게 이익이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들을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어느 대학교수의 사례가 있다. '평등한 사회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성적을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동일한 성적을 부여하겠다고 학기 초에 약속을 한 것이다. 첫 시험 결과 평균 시험점수는 B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에서는 평균 C, 세 번째 시험에서는 평균 D, 급기야 학기말 최종적으로

로 평균 시험점수가 F가 나왔다. 결국 학생들은 평등하게 F라는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는 일화이다. 예상치 못한 일은 공부할 열심히 한 학생들이야 당연히 불만이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조차 불만을 토해냈다는 것이다. 성적이야 말로 공평의 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평등의 불을 적용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실책이었던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8여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특성화 미흡, CK-2 사업 지원 등으로 86%의 입학 정원을 감축을 해야 한다. 140여 명(8.6%)의 입학 정원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가 지금 뜨거운 감자이다. 이 정원 감축 방법이 향후 우리 대학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평등이 악인지, 공평이 독인지 또는 그 반대인지의 예를 보면 답은 뻔하다. 답답한 것은 이런 뻔한 답을 두고도 오답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구성원이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신문사에서 배운 책임의 무게



기자수첩

오혜진 기자  
(한국어문 1)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여름 방학, 고대하던 한성대 신문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는 동안 편집국장님이 이곳은 동아리가 아니라 '신문사'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학교 신문 편집부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편집부장의 자리까지 올라 신문을 발행했던 경험이 있어 그 말의 속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수습기자 생활은 시작되었다. 내 발로 뛰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재를 할 생각이 가슴이 떨렸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에게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취재원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야만 했다. 맨 처음으로 한 일은 인터뷰 대상과 컨택하는 것이었다. 겨우 연락이 닿았다는 안도감에 기뻐할 새도 없이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인터뷰는 어렵다며 또 다시 거절했다. 충격이었다. 당연히 학생기자의 요청이니 한 두 번 시도하면 쉽게 응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야 이곳이 고등학교에 속해 담당 교사가 관리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 몫을 해내야 하는 신문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는 인터뷰 요청하러 다니는 나를 선생님들께선 그저 기특하게만 여기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곤 하셨다. 그러나 대학 신문사에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자신의 맡은 일을 해결하기 바빠하며 그만큼 자신의 몫을 책임지며 해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돌고구를 찾아야 했

다.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끈질기게 요청을 한 결과 신문사 입사 이후 내 손으로 직접 성공해낸 첫 취재였다. 20살, 처음으로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고등학교 편집부장 시절에도 내가 부원들을 이끌어 신문을 발행해야 한다는 책임은 가지고 있었지만 가볍게 그지 없었다. 아마 나를 뒤에서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학보사에 들어온 지금, 나는 20살의 책임이 주는 무게를 온전히 혼자 느끼며 버텨내야 한다. 이제 막 수습기간이 끝나 정기자로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홀로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더 많은 외부 인터뷰와 교내 인터뷰를 경험하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을 것이다. 신문사는 그런 나를 성숙해지도록 끝없이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는 왜 내성발톱이 되어버렸나?

예쁜 하이힐의 걸모습과 달리 그 안에 자리 잡은 엄지발가락이 미치도록 아파온다. 하이힐을 벗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뜨끈 뜨끈한 발가락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성발톱 때문이다. 아프게 파고드는 내성발톱에 손톱 깎기로 이리저리 모양을 다듬어도, 어느 순간 금세 자라면서 엄지발가락을 아프게 후린다. 어떤 때에는 작정하고 발을 파고드는 발톱을 후벼냈지만, 피만 줄줄 날 뿐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 파고든 한 쪽 발은 발결개 통통 부어 손을 댈 수조차 없이 아프다. 언제부터 생겨버린 걸까? 내 몸의 일부가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더니, 병원에 갔더니 계속 자르고 후벼 대서 그렇다고 약을 먹으면서 참아보란다. 당장이라도 뺏아 버리고 싶은 내성발톱을 참으라니, 마음 같아서는 벌써 발톱을 뽑았겠지만, 쉽게 그럴 수 없다. '당장 발톱을 뽑아버리면 아파서 어떻게 견디?', '뽑는 것도 엄청 아플 텐데', 그리고 '뺏혀 나간 엄지발톱이 새로 예쁘게 자라날까?'라는 두려움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고 나오는 발톱을 억압했더니, 이제 발톱이 내 발가락을 고통으로 억압하고 있었다. 대학원론은 대학에게 내성발톱이 되어버렸다. 뺏아 버리고 싶지만 뽑을 수 없고, 더 이상 자라지 말라고 손톱 깎기를 들어뿔수록 더 미묘한 균열을 만들며 자라난다. 지난 9월 초, 선선한 날씨와 함께 맑은 개강의 즐거움도 잠시, 각 학교의 학내 언론이 술렁였다.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개강호를 백지로 낸 학교, 제대로 신문이 발행 되었지만 대표를 금지당한 학교, 개강호인데 기사 내용이 비판적이라며 발행을 막은 학교, 기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 지원처에서 인쇄를 막아버린 학교까지. 각 대학의 언론은 학교라는 발가락의 내성발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발가락이 아픈 이유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발톱을 막무가내로 잘라내려 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두었으면 예쁘게 잘 자라날 발톱을 스스로가 내성 발톱이 되도록, 그리고 굵아터지도록 만든 것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다시 뺏아 버리면 그뿐일까? 아니, 원래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둬야 한다. 애초에 발가락 주인의 임의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몰랐겠지만, 발가락을 보호하는 것이 발톱의 역할이기에.

## 현실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낙산에 올라

김혜빈 학생  
(시각영상 1)

8월 31일, 나는 방학의 마지막 날,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크리에이티브 아레나'에 참석했다.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는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는 행사이다. 이날 강의에는 SNS 시인 '하상욱' 시인과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트 '하세가와 요헤이'(양평이형)가 있었다. 두 사람의 강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지만 내용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하상욱 시인은 강의 말미에 '배운 적 없다고 주변이 말린다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시인 이전에 디자이너로서 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는 때, 모두들 말렸지만

그는 무작정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이름만 말해도 모두가 아는 시인이 되었다. 하세가와 요헤이씨 역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작정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연히 접한 한국 음악에 빠져 런던 유학계획을 접고 무작정 한국으로 날아왔다.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던 그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적응해 나갔다. 그의 노력과 근성은 20년이나 되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요즘 들어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하상욱 시인과 하세가와 요헤이씨의 말은 자칫 뜬 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좋은 학벌, 좋은 스펙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신과 맞지 않을지언정, 살기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한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답이 필요하지, 위험한 행복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풍조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던 내게, 두 사람은 용기를 심어주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다지게 되었다고 할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무조건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실패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니 행동까지 바로 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니다. 나는 여전히 겁 많은 대학교 1학년이다. 하지만 전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든 걸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겠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나은 미래의 내 모습에 기대를 걸어본다.

## 사회과학대의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한성인께

손용 사회과학대 경학생활장  
(경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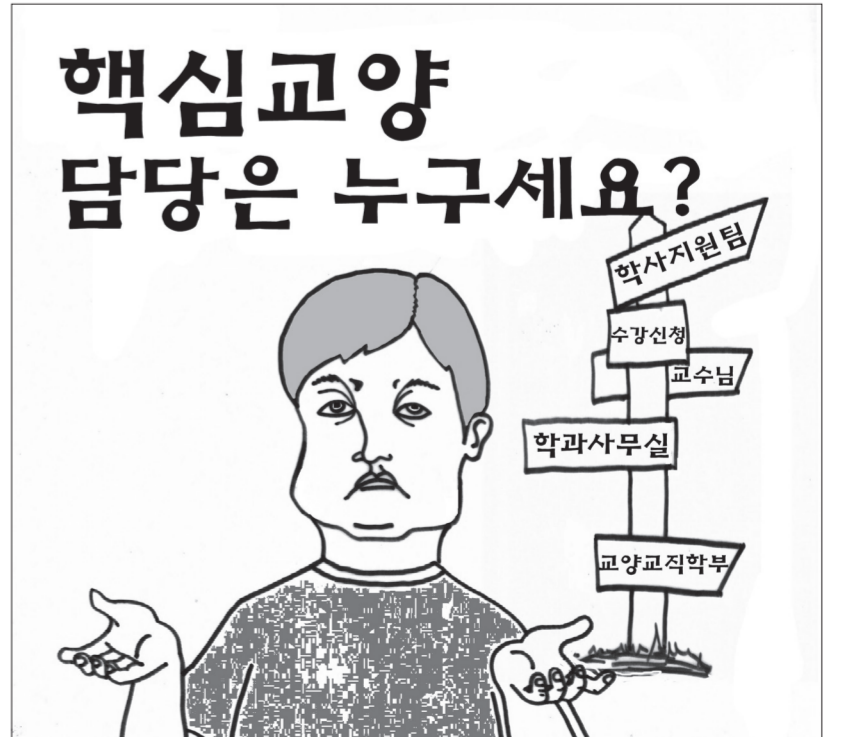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과 08학번 손용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1학기를 보내고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이고 또 또한 시간이 너무 빠르기만 합니다.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또 생각보다는 물 흐르듯이 학교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지금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고 뿌듯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 개강전 2014년도 신입생을 인솔하여 새내기 배움터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저로서는 대학생활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새터를 1학년 후배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진행하여 제가 목표했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올

해 임기가 끝나고 다시 행사를 진행해야하는 때가 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지난 1학기동안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스마트폰 충전소 운영, 구기종목 공 및 고대기 대여, 시험기간 간식배부, 무료컬러프린트, 사대체전, 농활). 거의 모든 사업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료컬러프린트 사업은 많은 학우분들이 찾아주셨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대회는 큰 사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대체전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매년 기다리는 행사이고, 진행하는 저희 학생회도 매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아쉽지만, 학생들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으로 여름농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마을에 분산되어 한 마을회관에 한 단위가 생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경영, 무역, 경제, 행정, 역사 각 5개 마을로 편성을 하여 7박8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 중에 농촌에 처음 오는 학생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도시의 편리함에서 떨어져 선배, 후배, 동기들과 생활하면서 같이 땀 흘리고 농민분들과 이야기고 나누며 생활하면서 방학 중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과학대 학우들의 공부나 취업, 자기개발도 아주 중요하지만 즐겁고 의미있는 학교생활에 더 많은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즐거워서 놀기만 하면 힘들어지므로 계획에 맞춰 학업에도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사회과학대의 높은 취업률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과학대학생회는 2학기에도 계획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기본 좋은 진리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낙산만평

한지선(의생활 1)



핵심교양  
담당은 누구세요?

# 꿈의 대화

길종상가의 박길종 작가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본고 학생)가 만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예술가는 규칙이나 원칙을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해야한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공간을 빛내는 예술이 있다. 바로 작가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되는 설치 예술이다. 꽃병이 올려져 있는 탁자도 옷으로 가득한 더러운 침대도 설치 예술이 될 수 있다. 한계가 없어 더 더욱 자유로운 설치 예술. 과연 설치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길종상가의 박길종 작가는 본고 서양학과 졸업생이자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을 공간에 표현하는 작가이다. 지난 9월 6일 토요일 낮 다양한 생각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태원에서 박길종 작가와 편집샵 운영을 꿈꾸는 한 지선(의생활 1) 학생이 '꿈의 대화'를 나누었다.

**멘토:** 취직하기가 싫어서 일 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때 20대 후반이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그러던 중 '이태원 주민일기'라는 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의 한분이 미모사라는 빈 홈페이지를 주셨어요. 홈페이지가 생겨서 재밌게 꾸미려다 보니까 제가 목공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경험을 살려 가구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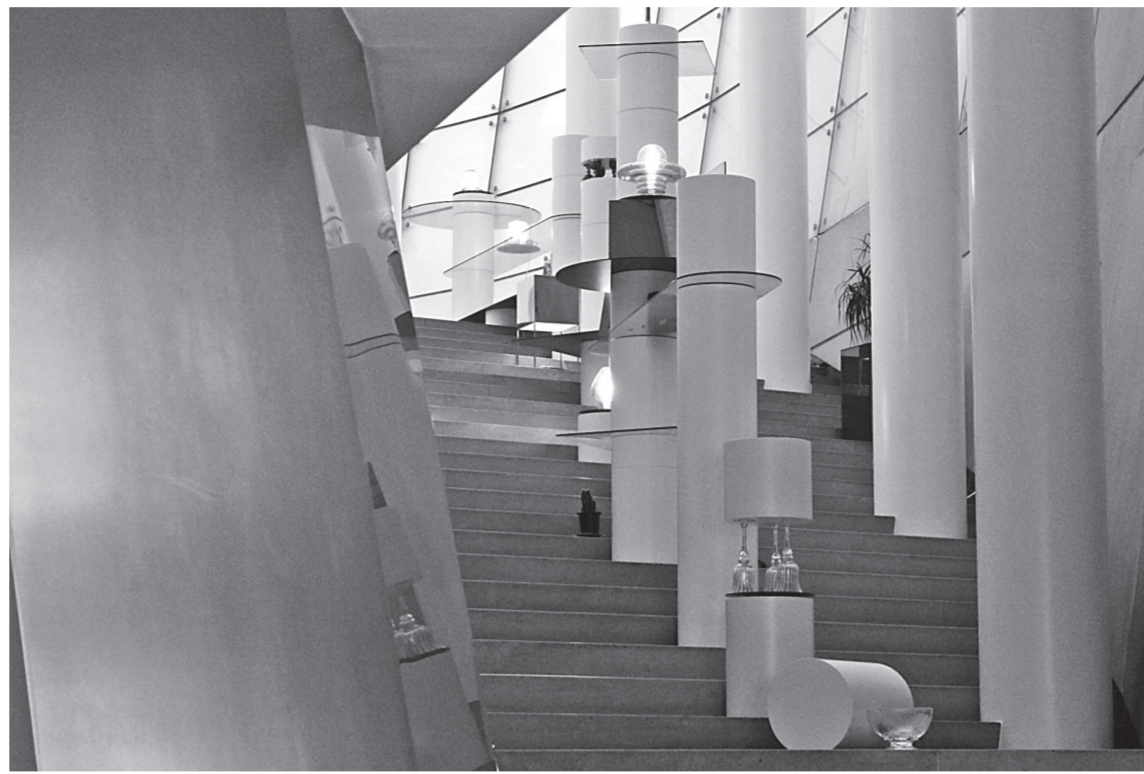
**멘티:** 서양학과와 관련된 진로나 취업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멘토:** 저도 한때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떤

작가의 어시스턴트 생활도 하면서 '미술 작가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실생활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학생 때는 그쪽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 직업의 좋은 면만 보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 다르거든요. 더 힘들고 어렵죠. 물론 아직 저학년이라면 막연한 꿈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3.4학년 때는 더 이상 막연한 꿈에 묶여있기보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 같아요.



▲멘토 박길종 작가의 모습



▲ '스펙트럼-스펙트럼'에 전시된 길종상가의 '아 귀에 걸면 다르고, 어 코에 걸면 다르다'는 작품이다.

**멘티:** 예술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중요하나요? 작가님과 같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토:** 다양한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아직까지도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본인의 능력이 훌륭하다면 주위에서 먼저 연락을 줄 테니까요.

그리고 예술가에게 중요한 자질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답

은 없어요. 각자 성격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아닐까요?

**멘티:**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실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업하시나요?

**멘토:** 일단 보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저는 전시가 끝난 후에도 그 작품의 실용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작품이 전시가 끝났다고 해서 참고에 처박혀 잊혀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내) 관한 세상'에서 전시됐던 유리 색색 각목이 란 제품 등 전시된 제품들을 홈페이지

지에서 판매하고 있고.

**멘티:** 작가님은 작품을 제작하실 때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멘토:** 제가 이번에 스펙트럼-스펙트럼 전시전에 선보인 '아 귀에 걸면 다르고, 어 코에 걸면 다르다'는 작품은 전시공간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저의 경우 작품을 제작할 때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난 이 자리가 제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길가다 우연히 보게 된 특이한 건축양식마저 저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모든 것을 눈여겨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어

디서 영감을 받지 모르니까요.

**멘티:** 저도 '아 귀에 걸면 다르고, 어 코에 걸면 다르다'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인상 깊었는데 어떤 이유로 제목을 선정하셨나요?

**멘토:** '아 귀에 걸면 다르고, 어 코에 걸면 다르다'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두 가지 격언을 합친 제목이에요. 전시장에 있으면 작품으로 바라보지만 전시장을 벗어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작품이 소품이 되기도 하고 상품이 되기도 하죠.

**멘티:** 박길종 작가님은 가구디자인, 설치아티스트, 인력공단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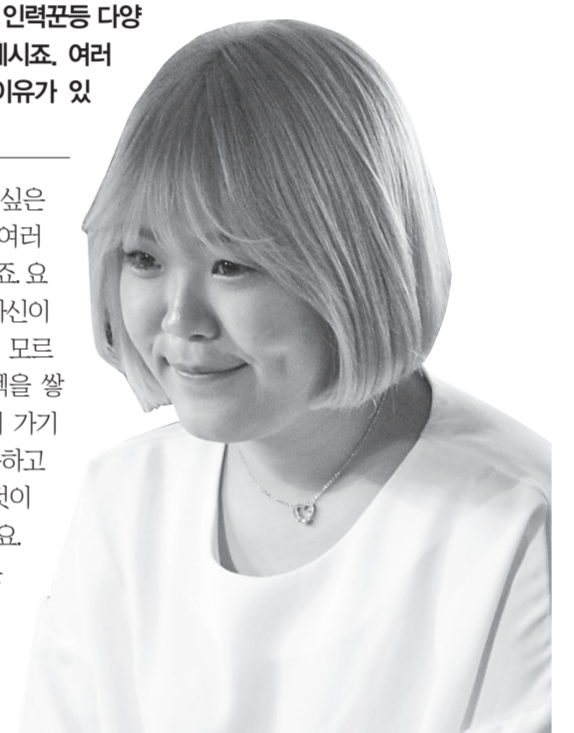
**멘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죠. 요즘 즈음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왜 회사에 다니는지 모르는 채 토익이나 스펙을 쌓고 있잖아요. 회사에 가기 위해 영화도 보지 못하고 놀러 가지 못하는 것이 전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거든요. 길종상가를 보고서 '열심히 재미

있게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어떻게든 하면 되겠다' 구나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멘티:** 박길종 작가님과 같이 미래의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멘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규칙이나 원칙에서 벗어나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진짜 맞는 것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공과 무관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세요.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ac.kr



▲멘티 한지선 학생의 모습

### 대학원의 품격

## 뷰티문화를 예술로 끌어올리다!

국내 최초 설립된 뷰티예술학과를 가다!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의 김남희 교수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

요즘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고, 손톱을 가꾸는 데에도 전문적인 아티스트를 숨겨져 알고 있다. 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바로 뷰티예술가들이다. 이런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실력은 어디서 갖고 닦은 것일까?

한성대학교에는 국내 최초 뷰티예술분야 석사과정 대학원 뷰티예술학과가 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신설된 뷰티예술학과는 학계 및 현장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국내의 뷰티교육과 미용 산업을 선도하는 학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뷰티예술학과의 전공은 뷰티색채학, 뷰티에스테틱, 분장예술, 헤어디자인으로 나누어 있다. 특히 뷰티색채학은 타 대

학에서 설립되지 않은 최초의 학과로 2010년에 신설되었다. 뷰티예술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현재의 유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인숙 뷰티예술학과 교수는 "늘 트렌디한 수업과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예전에 뷰티 저널리즘, 뷰티이벤트학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97년도에 뷰티예술학과가 설립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시 국내에 뷰티예술 분야 학과는 전문대 57개교뿐이었다. 뷰티분야의 예술학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할 교수도 적고, 무엇보다 주변의 편견이 심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학교

안에서도 미용이 무슨 예술이라는 편견과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신 교수는 "뷰티예술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훌륭한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신 교수는 학교에 "끊임없이 우리 학교가 빨리 뷰티 분야에 선도적으로 학과를 개설한다면 예술학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한성대에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게 신인숙 교수의 노력 끝에 과가 신설되었지만, 첫 학기에는 학내에 뷰티예술 분야 학과는 전문대 57개교뿐이었다. 뷰티분야의 예술학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할 교수도 적고, 무엇보다 주변의 편견이 심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학교

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 교수는 "지금도 미용 분야에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우수한 논문으로 졸업하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뷰티예술학과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미용분야의 지도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류를 주도하는 예술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뷰티예술학과는 국내 최초 설립된 것이 강점이다. 그러나 뷰티예술학과가 더욱 돋보이는 점은 이렇게 예술가로서 뷰티예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한 졸업생에서 찾을 수 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생활 1)

# 자연의 경이로움 싱크홀, 우리나라에서도 싱크홀이?



▲멕시코의 제비동굴(Cave of swallow).

최근 SNS에서 갑자기 지반이 가라앉은 자연 재해인 '싱크홀'이 화제이다. 외국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싱크홀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시 석촌동에서도 지하차도가 갑자기 가라앉은 현상이 발생했다. 석촌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잇달아 지반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 대중들 사이에서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자연과 도심에서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알 수 없는 구멍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 자연의 신비 '싱크홀'

멕시코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제비동굴(Cave of Swallow)은 세계 최대의 수직 싱크홀이다. 제비동굴은 지름 50m에 깊이가 무려 376m에 달하며, 바닥은 축구장의 3배 크기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데빌스홀 주립공원(Devil's Hole State Park)의 싱크홀 또한 이 지역이 가장 자랑하는 관광 명소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싱크홀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최고의 경관으로 변했다. 이런 싱크홀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각각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싱크홀'은 왜 생기는 걸까?

싱크홀의 주원인은 바로 지하수이다. 땅속에는 지층이 어긋나면서 길게 균열이 나 있는 지역, 소위 균열대가 있다. 이를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사라지면 그 공간으로 지반이 일시에 내려앉는 것이다. 지하수가 많

이 빠져나갈수록 그 규모도 커진다. 그렇다 면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이유는 뭘까? 긴 세월 동안 빗물이 땅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 가면서 지하수를 형성하는데, 땅속으로 스며든 지하수는 점점 땅속 구멍을 키운다. 이런 지하수가 지각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결과 동굴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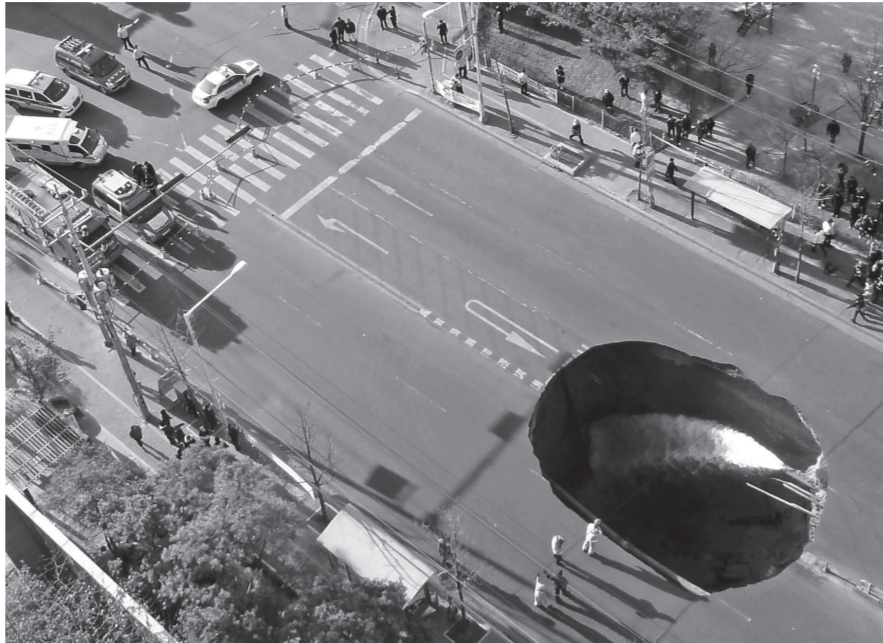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싱크홀이 아닌 '도로 함몰'

자연 상태의 싱크홀은 주로 석회암 지역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강원도 삼척, 영월 지역의 지반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적인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은 대부분 화강암·편마암 지반으로 이러한 자연적인 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강원도 석회암 지대도 아닌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일까?

우리나라 도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개발로 생기는 지반침하 현상이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최연우 팀장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은 '싱크홀(sinkhole)'이 아닌 '도로 함몰'로 불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회암 지대에서 발생하는 해외의 싱크홀은 '자연 재해'이지만, 이는 '인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도로 함몰' 도심의 공포가 되다

인위적 싱크홀로 불리는 '도로 함몰' 또한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원리이지만, 이는 지하 상하수도 누수, 지하철 같은 지하 건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설공사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지하수가 위치한 곳보다 아래에서 터널 등을 굴착하다 지하수 흐름에 따라 토사가 흘러 지반이 내려앉은 경우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 70여 곳에서 도로 함몰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인천 도심에서 지름 16m 규모의 원형 함몰이 생겨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수 한명이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 또한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해 무분별한 지하 공사 때문으로 밝혀졌다. 자연적으로 생긴 싱크홀과 달리 도심에 생기는 도로 함몰은 규모가 작더라도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교통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주변 건축물이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기도 하는 외국의 싱크홀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도로 함몰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자연재해인 줄로만 알았던 지반침하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하수 네트워크'를 망가트린 발로 서있는 땅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고 있다. 지금이라도 땅속에서 보내는 경고에 대담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인테이 기자 taem14@hansung.ac.kr



▲미국 플로리다 주 '데빌스 홀 주립공원(Devil's Hole State Park)'의 싱크홀.

## 뚝!뚝! 연구중이세요?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 '대학연구소'는 끊임 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과 모험적인 설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는 곳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 ② 고대사연구소



▲ 고대사 연구소의 박승범 연구원과 정동준 연구원이 회의를 하는 모습.

## 한·중·일에 걸친 우리 고대사 사료를 집대성하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알려면 사료부터 찾아야 한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고대사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걸쳐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옛 사료까지 모아 번역하고, 해석하는 연구소가 있다. 우리학교 우촌관 516호에 있는 '고대사 연구소'이다. 고대사 연구소는 지난 9월부터 3년 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연구

를 위해 정호섭 역사문화학부 교수와 정동준, 박승범, 채미하 연구원과 이외의 여러 교수, 대학원생 5명으로 총 16명이 모였다. 고대사 연구소는 한·중·일에 걸친 한국고대사 관련 사료를 모아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고대사 관련 동아시아 사료의 연대기적 집성'이라는 이름의 이 연구의 결과물을 책으로 편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일에서 발견된 우리 고대사 사료를 한눈에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에 있다. 정호섭 교수는 "이 연구결과는 한국고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대사 사료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사료를 모아 하나하나 번역해 정리한 이 책이 고대사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사연구소는 지난 해 9월 시작해서 1년간 1차 연구를 마치고 2차 연구를 시작했

다. 연구는 시대별로 총 3차로 나뉘어 있다. 1차 연구는 고조선부터 298년까지의 고대사에 대한 사료이다. 고대사 연구소는 한국의 사료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사료까지 정리하고 있어 이를 위해 외부 자문을 받고, 많은 연구회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연구는 300년부터 677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게 된다. 정호섭 교수는 "중국, 일본에서 발견된 우리 고대사 관련 사료를 모아 비교하는 것으로,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각 사료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료 간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대사 연구소는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6억 7천만여 원의 상당한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정호섭 교수는 "우리학교가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심축으로써 이런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우리학교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교내 연구역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대사 연구소는 한국고대사 학문을 위해 매일같이 우촌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이 재조명되고 있는 대학 사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학교가 고대사 연구소와 같은 인문학 연구소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인테이 기자 taem14@hansung.ac.kr

## 오픈BOOK 테스트

'오픈 북 테스트'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전공 서적을 몰두하여 읽어 내리는 것처럼 인생이란 시험속에서 도움이 되는 책을 교수님께 소개받는 코너이다. (편집자주)

“책 속에 길이 있다. 진부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는 '어떤' 책 속에 '나의'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다. 책 잘 읽기로 소문난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볼밖에..”

-강호정 교수 (한국어문학부)



! 사사키 아타루 / 자음과모음 / 2012.05.18 !



! 이현우 / 현암사 / 2010.09.11 !

##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 밤의 기록

현재 일본 사상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평가이자 젊은 지식인 사사키 아타루가 책과 혁명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담아낸 에세이다. 저자는 루터를 비롯해 마호메트, 니체, 도스토옙스키, 프로이트 등 수많은 개혁가와 문화가, 철학가를 통해 '책이 곧 혁명'임을 이야기한다. 즉, 혁명이 책을 읽고 쓰는 것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책은 사라지지 않기에 미래의 희망 역시 '책을 읽고 쓰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 책을 읽을 자유 : 로자의 책임기 2000-2010

《로자의 인문학 서재》의 이현우의 두 번째 책. 저자는 '로자'라는 필명으로 '로자의 저공비행'이라는 블로그를 꾸리면서 인터넷 서평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로자 블로그에 쓴 서평을 모아 만든 책이다. 그의 경이로운 독서 편력과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하고 비평한 리뷰를 엮을 수 있다. 이번 책에서 로자는 책 읽기의 기술과 방법론, 언어의 힘에 관한 주요 글들을 총망라해 놓았다.

## 인문하는 너

'인문하는 너는 성적, 취업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통찰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인문학 칼럼 코너입니다.

## 소크라테스의 질문

철학을 흔히 생각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 이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철학하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나가는 활동이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질문이야말로 생각하는 기본이고 바탕임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있다. 바로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카이레폰은 델포이의 신탁으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러자 무너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며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신이 왜 자신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 시인, 비극 시인, 장인(匠人)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현명한 사람임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달리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신탁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였다. 지혜는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무지를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모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다. 그 과정에서 저명인사들의 표적이 되었고 나쁜 평판까지 얻게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다. 그가 표적이 된 것은 그가 사용했던 질문 때문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그 유명한 '문답법'을 활용한다. 문답법이란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소크라테스 특유의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문을 던지고 또 던져서 상대방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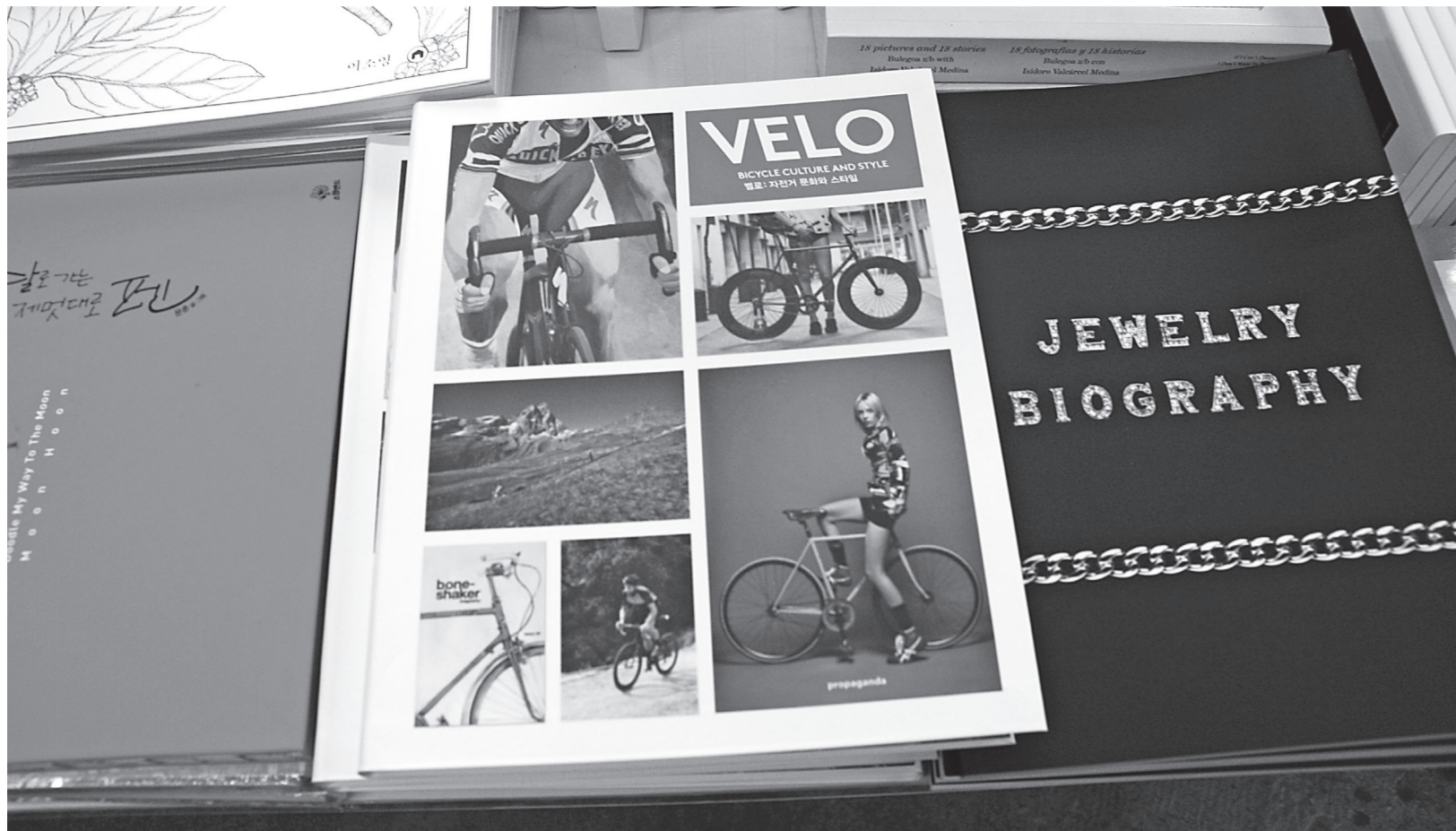
그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문답법을 활용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답법을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진리를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생각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생각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다. 질문하는 능력이 철학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문을 하려면 '나는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거나 기존의 것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원천이기도 하다.

## 안상현

자기개발과 책임기의 전문가

저서 『청춘의 인문학』 『인문학 공부법』



## 작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겨 있는 책, 독립출판

독서의 계절 가을, 언제까지 베스트셀러에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제는 독립출판이 대세. 대형 출판사의 출판물에 지루함을 느꼈다면 올가을엔 남들과 차별화된, 작가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립출판물을 맞이해보자.

올해 9월 6일 독립출판물 기획전문 어바웃북스(ABOUT BOOKS)가 열릴 정도로 독립출판은 독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독립출판이란 무엇일까?

독립출판은 주류, 기성 출판사가 아닌 개인이나 소자본 집단이 기획과 편집, 유통까지 관여하는 출판 방식이다. 작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주말에 시간을 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출판을 하면 그것이 독립출판물이 되는 것이다. 독립출판의 디자인과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출판물마다 고유의 매력을 가진다. 주제 선정 또한 자유로워 가가린 서점에는 서촌마을에서의 일상을 써놓는 등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소식을 알리는 잡지도 있다. 이렇듯 작가의 뚜렷하고 독특한 개성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독립출판이다.

대형 출판사의 작품이 대중의 유행에 맞추는 반면 작가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독립출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즉 작가가 하고 싶은 것, 즐거워하는 것 등 작가의 색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그리고 독립출판은 상대적으로 대형 출판사에 비해 작업자가 적다. 대형 출판사의 출판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독립출판은 상대적으로 검열, 심의를 적게 받고 작업자가 적어 출판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이러한 독립출판물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본

지는 경복궁역 근처에 위치한 더 북 소사이어티서 점과 가가린서점을 찾았다.



〈더 북 소사이어티〉

더 북 소사이어티는 마포구 상수동에서 소규모 출판에 대한 행사 및 페어로 시작된 서점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이다. 여행을 다녀오고, 전시회를 다녀와서 찍은 사진, 그림 등 예술 관련 재료를 주류로 다양한 장르의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책에 대한 소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표지부터 일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들로부터 받아 왔던 느낌과는 다른 새로움을 준다.

이곳에서 더 북 소사이어티 서점과 독립출판사 미디어버스를 운영하는 임경용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독립출판물은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고 자유롭다 만든 사람이 전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판을 한다는 점과 개인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더 북 소사이어티는 출판 외에도 출판사들이 모여

책을 파는 도서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가가린서점〉

가가린서점은 경복궁 영주문길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다. 이곳에서는 일러스트, 인문학, 여행기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출판물을 팔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사진을 찍고 만든 엽서도 팔고 있다. 가가린 서점에 들어가면 핸드폰 크기만 한 책부터 모니터 크기만 한 책들까지, 크기와 질감이 모두 다른 책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가가린서점의 황국현 매니저를 만났다. 그는 "독립출판물에는 자신의 기록, 일기를 책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다. 이렇듯 장르의 폭이 매우 넓으니 직접 서점에 와서 책 한 권, 한 권 고르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가가린 서점에 들어가면 아늑한 동네 책방의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가가린서점은 동네 책방과는 달리 독특한 책으로 가득 차 있다. 서점에 들려 아가리간 엽서와 일러스트집을 읽어보자.

전화번호 aegins16@hansung.ac.kr

### 연들♥연들

“연들연들, 연애고민 들어들어요는 한성대 학생들이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는 단계에서 겪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코너입니다”

저는 2년째 연애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남자 친구의 자상하고 재미있는 성격 때문에 끌려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 후 남자 친구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 주위에 여자사랑친구(일명 여사친)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에도 이것 때문에 종종 싸웠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남자 친구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이 군대에 가게 되어 더 여사친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떨 때는 저보다 여사친들을 챙깁니다.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대답하는 남자 친구.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 “사랑이란 한 그루 나무가 아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전문가의 조언

남자 친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자상하고 재밌게 대한다면 기분이 나쁘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남자 친구의 '성격'인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남자 친구가 알뜰기도 하고, 자기에게만 잘해줬으면 하겠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이상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아직 어리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 미숙한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을 위한 열정이다.'

하나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사물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애정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다만 여자 친구 입장에서 그런 남자 친구의 태도

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많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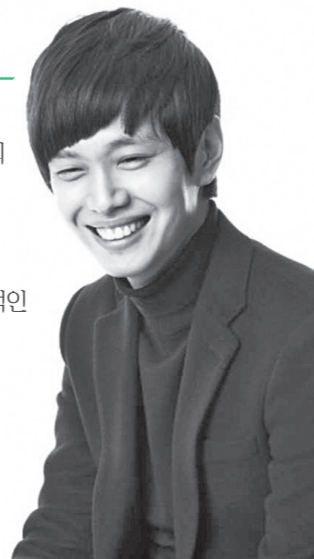
하지만 그것은 남자 친구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에게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런 남자 친구를 순수하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 친구 주변에 여자가 많아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여자라면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남자 친구의 성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찜찜하게 대하고, 오직 여자 친구에게만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위험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음카페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lovestudy78



### 일상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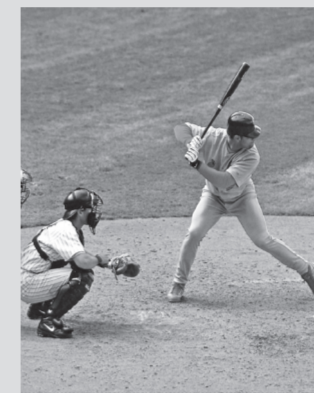
## “콩콩 어디서 가을 냄새나지 않아요? 가을맞이 레시피”



#### [장소] 서울숲

“뭐?? 서울 한복판에 숲이 있잖아!?”

그렇다. 숲이 있다. 산책로, 배드민턴, 그리고 자전거 대여까지 단풍 구경과 신선한 바람을 맞아봐 가을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숲 가을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 주저하지 말고 서울숲을 가보자.



#### [스포츠] 가을야구

“1위를 다투는 포스트시즌이 돌아왔다. 가을야구,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계절”

야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을야구의 시작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 야구장 곳곳에는 가을 냄새가 풍기고 있다. 과연 올해의 패권을 차지하는 구단은 어디가 될 것일까. 정상을 차지하기 위한 네 개의 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 [영화] 원스

“돌아오는 가을을 맞아 감성을 촉촉하게 해주는 영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 속에 숨겨진 사랑의 아픔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녀와의 만남 음악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앨범이 완성되는 만큼 서로의 매력에 빠져드는 두 사람. 한 곡, 한 곡 완성되는 음악처럼 그들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가고...

### 다윈

다윈이란 '모두가 원하는'이라는 순 우리말로 한성대 학우 모두가 좋아할만한 연극표를 드리는 독자 참여형 이벤트 코너입니다. 신문내용을 토대로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출제했으며 정답자에 한해 추첨으로 연극 '스캔들' 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학술) 본교 우촌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일에 걸쳐 우리나라와 관련된 옛 사료를 모아 번역하고, 해석하는 연구소의 이름은?

사회) 이번 'CEO를 만나다' 코너의 주인공인 김은경 대표의 창업 아이템은?

지난 492호의 당첨자는 민진홍(경영 4), 박광희(컴공 3) 박재효(영어영문 3), 신규정(한국어문 3), 어드수호(의생활 2)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오늘 전시 보러 가는 여자 내일 전시 보러 가는 남자

오늘 당장 가고 싶은 전시회 두 개와 내일이 오길 기다리지는 전시회 두 개를 소개한다. 트로이카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의 간송미술관 첫 외부 전시. 국내에서 열리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청화백자 전시와 정상급 일러스트레이터 로저멜로의 첫 한국 전시회까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전시회로 초대한다. (편집자주)

오혜진 기자 dhgpwls0424@hansung.ac.kr  
전희민 기자 aegis16@hansung.ac.kr

현재 전시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지난 4월부터 대림미술관에서 '소리, 빛, 시간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트로이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트로이카는 런던이 주목하는 현재 아티스트 트리오이며 코니 프리어, 세바스찬 노엘, 에바 루키 3인으로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적 사고에 시각적, 공간적 체험을 더하여 인간의 감성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트로이카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자신들만의 실험적인 제작 방식을 발전시켜 과학과 예술을 교차시키고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다.

트로이카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 할 것인지에 따라서 소재를 선택한다. 현재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Weather Yesterday'는 하루 전의 날씨라는 소재를 이용해 과거에 대한 집착, 현재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했다.

트로이카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도대체 이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실제로 트로이카는 작품을 관람하는 감상자들에게 이 작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상상해보라는 숙제를 줬다.

순명민 큐레이터는 "모든 것은 열어두고 감상을 하자. 이 전시회는 하나의 감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감각을 이용하면 더욱 좋다. 또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 아닌 멀리서, 가까이서, 보는 방향을 다르게 보면 더 좋다"며 관람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번 트로이카 전시는 10월 12일에 막을 내린다. 대림미술관에서는 본교 학생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전시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9월 30일까지 트로이카 전시를 전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대림미술관 1층 안내데스크에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람 전 꼭 학생증을 챙겨가도록 하자.

**트로이카전**  
장소: 대림미술관  
일시: 2014.4.10~2014.10.12  
시간: 10:00am~6:00pm(화요일~일요일)  
10:00am~8:00pm(토요일)  
입장료: 5,000원 / 한성대 학생 1,000원



예정 전시



## 로저멜로 한국전 동화의 마법에 홀리다

**로저멜로 한국전**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일시: 2014.9.19~2014.10.15  
시간: 11:00am~8:00pm  
입장료: 10,000원



"로저멜로 한국전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안데르센 수상 작가 전시다" 남미를 넘어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인 로저멜로. 남미 문화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접해 보지 못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로저멜로 한국전이 개최된다. 로저멜로 한국전은 2009년부터 안데르센 상을 후원해 온 남미섬이 그림책에 대한 발전을 위해 주최한 것이다. 올해 안데르센 노벨상 일러스트 부문에서 수상한 브라질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인 로저멜로의 한국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저멜로 작가의 그림은 흑백 바탕에 역동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덧입히는 등 브라질 미술의 특색을 담고 있다. 원색적인 색감을 이용한 과감한 터치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에 밀바탕이 되는 선과 드로잉은 세밀하게 표현하여 그의 독창적인 색채 세계에 빠져들게 된

다. 또한 비닐이나 나뭇잎 등 상징적인 오브제를 활용한 그의 콜라주 작품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번 로저멜로 한국전에서는 한국에 소개한 적 없었던 여러 가지 삽화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각 그림책마다 다른 스타일을 시도하는 그의 도전정신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한국어판으로 최초로 출판하는 '실 끝에 매달린 주앙'을 기념하여 특별히 그가 직접 한글로 그린 삽화들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로저멜로 한국전 사무국 박미연 홍보팀장은 "한국 관객들을 위해 작가가 직접 기획했다"라며 "로저멜로 작가가 한글 삽화를 준비하는 동안 한글도 배우게 되었다"고 그의 열정을 전했다.

로저멜로 한국전은 그림책과 함께 그림책에 들어간 삽화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로저멜로 그림책의 한 장면을 홀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로저멜로 한국전을 통해 살아 숨쉬는 문화의 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현재 전시



간송미술관 제공

## 간송문화전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간송미술관 제공

**간송문화전**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일시: 2014.7.2~2014.9.28  
시간: 10:00am~7:00pm  
(평일, 일요일, 공휴일)  
10:00am~9:00pm(수요일, 금요일)  
입장료: 8,000원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 미술관은 겸재 전시를 시작으로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전시를 일 년에 봄, 가을에 걸쳐 두 번만 관람객들에게 문을 열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수집품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은 매년 만나질씩 길게 입장을 기다렸다. 이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7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보화각'을 주제로 한 간송미술관의 첫 외부 전시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했던 1부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일생과 문화 정신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다. 그러나 1부의 후속 전시회인 2부: 보화각은 예술적 가치에 주목하여 간송미술관의 대표작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시대를 대표하는 명품의 향연을 일반 대중에게 선사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문화의 장

달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것이다.

간송문화전 2부의 주제인 '보화각'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의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삼국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이르는 걸출한 명품 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는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를 필두로 국보급 불상과 고려청자, 조선백자, 간송 전형필 선생이 베개에 넣어 지킨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선보인다. 또한 조선 초기 최고 명필인 안평대군의 글씨첩과 추사 김정희의 서예 작품을 포함한 총 114점을 공개하는 대규모 전시인 것이다.

문화 유물은 그 시대의 꽃이라고 한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지켜내고 일구어낸 시대의 꽃밭을 구경하려 가보는 것은 어떨까.

예정 전시

##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조선 최고의 백자를 모아놓은 전시회" 조선최고의 백자, 조선청화백자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품격을 감상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공예와 회화가 결합된 왕실 미의식의 정수로서 조선 청화백자를 살펴보는 이번 기획전은, 국내에서 열리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청화백자 전시이다.

조선청화백자에는 사군자, 산수화 등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의 화려한과는 사뭇 다른 여유와 농담이 깃들여 있어 조선 시대부 문인들의 한적함과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선 청화백자 명품과 더불어 중국 명대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영락, 선덕연간의 청화백자가 함께 전시된다. 이 전시회는 중국 원나라에서 시작되어 18~19세기 일본과 유럽까지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하이테크이자 고부가가치 상품이었던 청화백자

가 조선에 처음 등장하였을 때의 이야기를 다룬다. 조선청화는 조선왕실이 세운 예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문인 지식인의 취향을 한껏 반영하기도 하고 꿈과 바람이 온 천하를 뒤덮듯 사회상과 관심사, 특히 장수와 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기도 하였다. 조선 청화는 단아하고 때론 화려한 모습으로 그 품격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예이자 회화이고 그릇이자 미술품인 청화백자의 특성과, 하얀 바탕에 파란 그림을 그려 넣는 한국적 감각과 방식, 그 안에 내재된 우아한 아름다움을 일관된 흐름 속에 볼 수 있다. 15세기의 것은 명나라 청화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나, 16세기에 이르러 사실적인 매조 무늬·산수 무늬 등이 등장하고 안정되고 아름다운 유약의 조성, 선명하고 있는 부드러운 기층 등으로 독특한 미를 형성하여 조선 청화의 특색을 보여준다. 조선 최고의 청화백자를 보면서 가슴을 푸른빛으로 물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조선 청화전**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일시: 2014.9.30~2014.11.16  
시간: 9:00am~6:00pm(화, 목, 금요일)  
9:00am~9:00pm(수, 토요일)  
9:00am~7:00pm(일요일, 공휴일, 단 1월1일 제외)